

미래지향 종단으로 탈바꿈 모색

조계종

중무·예산 등 체계개선·인력 효율화 전문 컨설팅업체와 조직진단 계약

조계종이 조직진단을 통한 중무체계 개선 및 인력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0월14일 총무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비전 있는 종단운영을 위해 종단 조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주 전문 컨설팅업체인 '글로벌경영컨설팅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돌입했다. 97년과 2000년 직간접인력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으나 종합적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고려할 때 이번 조직진단은 발전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조직, 인력, 예산 체계를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시키므로써 종단을 쇄신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 시대흐름에 맞는 행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

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계종이 조직진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다. 우선 94년 종단 개혁이후 현재의 3원10부 체제가 구축됐지만 각종 사업 및 종단 운영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임시방편적 운영을 해오면서 비효율적 측면이 상당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늘어나는 종도들의 요구와 확장일로에 있는 종단 규모와 사업을 따라잡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계종 예산은 95년 66억에서 올해 162억으로 3배 가량 늘었다.

마지막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절박감도 내포돼 있다. 인력이 필요하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준도 판단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진단은 바로 조직·예산·인력 3박자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를 통해 종단 운영체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중무수행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진단작업은 조계종 자체팀과 컨설팅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조만간 각 부서별 과·계장급 실무자들로 '조직진단 추진사무국'을 구성한다. 작업진행은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결과에 따라서는 종단의 구조와 인력이 대폭 개편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종헌 중벌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조계종은 조만간 중앙중무기관의 전 중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간다. 진단 작업은 내년 1월초까지 4개월여 동안 진행되며, 이후 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놓고 종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한영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교육·수행 체계화 가속 될 듯

명성 스님 회장 취임, 전국 비구니회 전향

명성 스님이 10월 22일 오전 11시 비구니회관에서 전국비구니회 제 7대 회장에 취임함에 따라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작될 전망이다.

한국 비구니 교육의 틀을 갖추는데 심혈을 쏟아온 명성 스님의 경험은 앞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 가는 데도 영향을 미쳐,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의 발전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것이 주변의 예측이다.

지난 8월 선방 스님 등 비구니 스님 600여명이 모

인 선수후 특강을 개최한 바 있는 전국비구니 선원 '선문화'도 명성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문화는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전통을 확립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선종 진작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총본산'인 전국비구니회관의 수행,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명성 스님의 지도아래 출·재가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명성 스님은

명성 스님(法號)은 1931년 11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강릉여고를 졸업한 후 강원 강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나, 속세의 인연을 접고 선행(善行) 스님을 은사로 입산했다. 이후 관음, 경봉, 운허, 만우, 탄허 스님 아래에서 공부하다 출가한지 5년 만에 성능 스님 지도아래 대교를 마치고 전교를 받게 된다.

30년간... 운문사서 후학 양성에 전념

승가대학원 개설, 서예·미술 깊은 조예

전강 후 스님은 선암사 강원에서 3년, 청통사 강원에서 10년 동안 후학교육에 매진한다.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고, 197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1974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30년간 운문사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해 왔다.

스님은 조계종 3대 중앙종회의원을 시작으로 4, 5, 6, 7, 8, 9대 총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문사 회주, 운문승가대학장, 운문승가 대학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다. 운문사에서 스님은 승가대학의 교육시설을 새롭게 건립하고, 비구니 강원 최초로 승가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비구니 교육 전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스님은 또 대한민국의미술포럼회 서예부에서 입상할 만큼 서예와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한성희 기자

“원효는 삶과 삶이 하나된 인물 인생에 대한 성찰 언어로 표현”

원효전서 영역작업중인 박성배 교수

현재 <원효전서> 영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배(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10월 10일 아주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박 교수는 “흔히 말하는 고회를 넘겼지만, 부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 건강도 주셨나보다”며 밝게 웃었다. 박 교수에게 현재 진행중인 <원효전서> 영역작업 진행상황과 원효 연구를 통해 박교수가 느낀 점, 향후 계획을 들었다.

▲<원효전서> 영역작업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다. 많은 부분은 무엇이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 원효 스님의 현존 저술 23종을 영어로 번역하는 <원효전서> 총 5권은 2006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완간할 예정이다. 나는 이 가운데 <대승기신론소>를 맡고 있으며, 현재 초역을 마치고 서문을 작성하고 있다.

▲<원효전서> 영역작업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원효전서>를 영역하면서 번역자 각자의 시각차이로 인한 번역



이라 할 때 원효 스님은 탁월한 학문적 소질을 보인, 삶과 삶이 하나된 인물이었다.

▲지금까지의 원효 연구에서 반성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 원효 스님을 신화화하는 연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신화화' '전설화'의 베일을 벗겨 7세기에 생존했던 원효 스님의 인간적 인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는 다른 성인(聖人)이다'라는 인식은 배우는 이의 게으름이나 현실인주를 합리화해 진정한 공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원효전서> 영역 작업을 끝낸 후 강의 외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 한국 불자들이 좋아하는 <금강경> 같은 불경들을 나의 이해에 근거해, 내가 쓰는 현대언어로 재구성해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 타 종교 서적 재구성에도 관심이 있는데 불

신화화·전설화 하는 연구의 틀 벗어나

금강경 등 현대언어로 재구성하고 싶어

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은 출간할 예정이다. 출간 후 이에 대한 지적이 제2의 논의, 논문 발표로 이어진다면 그것 역시 학문 발전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동양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오늘날 고전 읽기의 오독과 그에 따른 왜곡 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원효 연구를 해 오면서 원효 스님에 대해 교수님이 느낀 점이 있다면.

— 원효 스님은 학문적 소질이 대단하다. 당시 학문은 지금처럼 '지

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이 주어진, 인생 자체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 대한 성찰을 남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학문

교인이 쓰는 <요한복음> 같은 책을 통해 사상적 교토의 장을 마련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권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옆)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려

태풍 “매미” 피해사찰 하동군 여래사 대응전 불사 권선문

권선안내문

소납은 곡성 성륜사 청화큰스님의 문중으로 불도에 입문하여 부족하나마 반듯이 수행정진하며 성륜사에서 지장기도6년, 경북 김룡사 지장전 일기도, 김제금산사 보궁에서 아미타 3년기도를 회향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며 오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소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납은 발심하여 경남하동군 북천면 소재 여래사에 부처님을 모실 대응전 건립불사를 진행중에 뜻하지 않게 태풍 “매미”로 공사중이던 대응전은 쓰러졌고 묘사채 지붕도 날아가 버려 이 불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소납의 마음은 천근으로 부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국의 불자님, 여래사 대응전불사가 진행되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권선이 원만하여 하루속히 대응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정수 합장

▲태풍 “매미”로 무너진 대응전

▲태풍 “매미”로 지붕이 날아간 묘사채

온라인계좌

농협 833125-52-048739
우체국 611608-02-025357
예금주: 영경림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64번지 TEL 055)883-5879 · HP 011-207-5789